# 취업은 잠시 잊어라 우리는 해외로 간다 나눔과 인성 배우러

조선대 학생 국제봉사단이 지난 여름 방학 베트남 띵양성을 방문, 주민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요즘처럼 대학생들에게 '취업'이 전부인 시기에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도서관에는 취업 공부와 자격증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다.

이 같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깝고 소중하지만 잠시 공부를 뒤로 한 채 바다 건너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돕고자 나선 대학생들이 있다.

## 조선대 봉사단 27일~내달 21일 캄보디아·네팔 봉사활동

## 환자 600여명 진료, 위생교육…사물놀이 등 한국문화 전파

어학 연수를 겸해 영어권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삶 자체가 고달픈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조선대 학생들이 캄보디아로 국제봉사활동을 떠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봉사가 국내에서 1일이나 1박2일로 진행되는 점에 비춰보면 조선대 국제봉사는 무려 26일이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대(총장 전호종) 학생 20명이 조선대병원 의사 2명, 업무지원 직원 1명 등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의료봉사와 우리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대량학살(킬링필드)로 많은 인구가 학살당하는 처참한 경험을 겪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지바, 네팔의 카투만두·포카라·치트완 지역 등을 방문한다.

이들 봉사 단원들은 6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위생교육을 하는 한편 현지에서 한국말 배우기·한국 노래와 춤 배우기·한국 음식 함께 만들기·사물놀이 공연 등을 통한 우리 문화 전파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지 주민들과 함께 풍선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마술 공연, 이미용봉사, 월드컵 경기로 지구촌을 한껏 달군 축구경기 함께하기 등을 통해 조선대를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1990년대 이전 각 대학이나 기업, 사회단체들은 국내 농어촌 봉사 활동에 전력했으나 2000년대 들어 국제 사회의 인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데다 세계속 한국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국제 사회에 대한 참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조선대는 지난 2001년부터 학생들이 주축이 된 국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어학연수나 자매 결연 대학과의 교과 교류가 아닌 순수 봉사활동으로서 모든 준비와 진행이 학생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 타 대학 활동과의 차이점이다.

조선대는 러시아 연해주·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 등 10여개 국가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제봉사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여름 국제봉사 활동은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봉사 경험을 토대로 현지 지역 주민들과 밀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대학측은 봉사단 구성시부터 지원자 중 봉사 프로그램에 적합한 이들을 선발했다.

실제 이·미용 봉사가 가능한 학생이나 사물놀이·난타 공연 경험자, 마술, 요리에 능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준 것이다.

이번 봉사단원들은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봉사활동에 대한 신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 또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제봉사에 참여하는 약학대학 이유라(4년·약학과) 학생은 대학 4년 동안 방학시마다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해 부황·뜸·테이프 요법 등 물리치료와 기초적인 투약 등의 봉사 경력이 탁월해 선발됐다. 이유라씨는 "봉사란 가진 자들이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농촌에서 했던 봉사 활동 경험을 살려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대 전호종 총장은 "대학생의 학문 연구나 취업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고민 없이 이뤄질 경우 대학 교육은 사실상 실패나 다름없다"면서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통합커뮤니케이션(UC)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사 Case Studies 등록

## 전 세계 IT 관계자들 주목

전남대 통합커뮤니케이션(UC)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 Case Studies로 등록돼 전 세계 IT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MS사의 Case Studies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사례 중 기술현황, 기술집약도 및 가치 평가가 우수한 사례들을 선정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선진화된 IT 트랜드를 제공하는 코너다.

전남대학교 UC는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전화(IPT), 메일(음성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포털, 스마트폰(FMC)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또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MS사로부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로 'MS 라이트 하우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순팔 기획처장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UC 환경 구축으로 구성원 간에 빠르고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면서 대학 경쟁력 확보와 비용절감 등 U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학교와 함께 UC를 구축한 (주)유비베이스(정회성 대표)는 MS가 전 세계의 35만여 파트너를 대상으로 최우수 파트너를 가리는 MS 월드와이드 파트너 컨퍼런스에서 올해의 국가 파트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서강정보대 임상병리과 김학영양 전국학술대회 대상

서강정보대학 임상병리과(학과장 황구연) 3학년 김학영양이 최근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최한 제48회 종합학술대회 학생포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4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국 43개 대학에서 참가한 이번 포럼은 학생들이 제출한 초록과 자료를 참고로 1차심사를 거쳐 12개 대학이 본선에 올랐으며, 내용의 창의성·발표태도·학생참여도 및 청중의 반응을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학영양은 조영국교수의 지도를 받아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취업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전남대 하반기 수강생 모집

전남대가 오는 16일까지 2010학년도 하반기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30명은 8월2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주간 국고지원을 받아 무료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우수 신입생 선발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이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도전성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교육, 윤리성과 다양성을 갖춘 글로벌 교육,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성 교육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이수생에게는 '입학사정관 인증서'가 발급돼 추후 대학 입학사정관 채용에 응시할 경우 유리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sle.jnu.ac.kr) 또는 행정실(062-530-3882)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 서강정보대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4년연속 지정

서강정보대(총장 김정수)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으로 4년연속 지정됐다.

시범대학으로 지정된 서강정보대는 '성인학습자 선행학습 인정체제의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은 전국의 전문대학 중 학사제도가 우수한 5개교가 선정되어 자율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뉘어 앞으로 3년간 학사제도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서강정보대는 '성인학습자 선행학습 인정체제의 시범운영'을 위해 경영과와 건설토목과에서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근무 분야와 관련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행학습 평가인정 모형을 개발, 전국 전문대학에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호종 조선대 총장 러시아 이르쿠츠크 방문

# 한국어학당 설립 의향서 체결

전호종 조선대 총장이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한국어학당 설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

전호종 총장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 자매결연대학인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과 한국어학당 설치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한다.

조선대는 지난 2008년 한국 대학 최초로 베트남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 대학교에 한국어학당을 설립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근로자와 이주여성,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도 세종한국어학당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948년 설립된 이르쿠츠크 대학은 외국어 전문 및 통번역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8개 학부에 재학생은 4천여 명에 달한다.

조선대는 지난 2005년 자매결연 한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교와의 상호 교류협력활동을 확대하고 언어학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어학당 개설을 추진한다.

/채희종기자 chae@

### 교육부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예술교육선도학교 1천곳 지정

## 중점학교도 100곳으로

예술 분야를 특화해 가르치는 예술교육선도학교를 2012년까지 1천곳 지정하고, 예술·체육중점학교를 100곳으로 늘리는 등 초·중·고교 예술교육이 지금보다 크게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예술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30곳을 지정한 예술·체육중점학교는 내년 20곳, 2012년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술교육선도학교란 관현악이나 미술동아리처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예술·체육중점학교는 일반 중·고교이지만 교육과정을 아예 예술·체육 쪽으로 확대 편성해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연합뉴스